

물리·작업치료사의 근거중심치료 인식도 차이

고형정*, 양경옥**, 오명화***, 김정자****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영대학교**, 동신대학교***, 호원대학교****

A comparison in the evidence-based practice(EBP) awareness of physical therapists versus occupational therapists

Hyeong-Jeong Ko*, Kyeong-Ok Yang**, Myung-Hwa Oh***, Jeong-Ja Kim****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Incheo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Hanyoung University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shin University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Howon University

(Received August 27, 2017; Revised September 18, 2017; Accepted October 13, 2017)

Abstract

Purpose. This study compared the awareness of the evidence-based practice(EBP) in 100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Methods. A questionnaire on awarenes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ttitude toward EBP,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EBP, and the performance ability of EBP. A questionnaire consisted of item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attitude toward EBP,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EBP, and the performance ability of EBP of the subjects. Data analysis was made by IBM SPSS Statistics Ver. 20. The EBP awareness was examined by the independent t-test.

Results. For the attitude toward EBP,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tem of ‘Therapists should judge whether they apply study results to individual patient. For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EBP,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items. For the performance ability of EBP,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tem about the ability to understand patient’s desire for treatment and treatment preference and the item about the ability to determine appropriate treatment process in cooperation with patients.

Conclusions. Both two groups showed very low results in the attitude toward EBP,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EBP, and the performance ability of EB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EBP education in undergraduate programs and the clinical field.

key words: Evidence-based Practice, attitudes, Educational experience, performance ability, physical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Corresponding author : kotpt@hanmail.net

1. 서론

최근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재할당 담당 치료사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근거중심치료라는 용어는 근거중심의학의 원리를 보건의료분야에서 확대 적용한 개념으로 전문영역에 따라 근거중심물리치료, 근거중심작업치료 등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근거중심의학은 1991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Goden Guyatt의 논문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과학적인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처음 문헌에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세계가정의학회 아시아태평양학술대회에서 ‘임상진로지침 및 근거중심의학’이 소개되면서 그 이후 각종 문헌에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연구가 관심이 많아졌다¹⁾. 쏟아지는 정보를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해나가기 어려우며²⁾,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의학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생 자기학습을 위한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성을 제기하며 근거중심 의학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³⁾. 과학에 기초한 근거가 진료 및 치료행위에 성공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하였다⁴⁾.

재할치료영역에서도 1990년대 초 근거중심치료가 소개된 이후 많은 해외문헌에서 근거중심치료가 강조되었다. 근거중심치료는 임상 의사 결정을 할 때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⁵⁾⁶⁾.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지식의 자료원이 되는 근거의 사용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 방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재할치료 임상에서 근거중심치료가 모든 조직에서 수행되지는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⁷⁾.

국내에서 물리·작업치료사들도 근거중심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근거중심치료를 수행하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근거중심치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국내 물리·작업치료를 대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여러모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근거중

심치료에 대한 치료사들의 인식과 활용도, 방해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소규모의 집단에서 이루어졌다⁵⁾⁶⁾⁸⁾.

본 연구에서는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물리·작업치료를 대상으로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인식도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인식도는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태도, 교육정도, 수행능력으로 나누어 알아보려고 하며 향후 근거중심치료 실행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지역 10곳의 의료기관에서 물리·작업치료를 근무중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측정도구 및 방법

연구에서는 선행연구⁸⁾⁹⁾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태도, 교육정도, 수행능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태도를 묻는 항목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교육정도를 묻는 항목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니다(1점), 잘모르겠다(2점), 그렇다(3점)’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근거중심치료의 수행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자신 없다(1점), 자신 없다(2점), 자신 있다(3점), 매우 자신 있다(4점)’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 2017년 2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G지

역 10개 의료기관의 물리·작업치료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치료사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2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태도, 교육정도, 수행능력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근거중심에 대한 인식도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검정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0.05$ 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물리치료사 50명(50%), 작업치료사 50명(50.0%)이고, 성별은 여자 72명(72%), 남자 28명(28.0%)이며, 학력은 전문학사 48명(48.0%), 학사 42명(42.0%), 석사 이상이 10명(10.0%)으로 전문학사가 가장 많았다. 임상경력은 2년 이하 47명(47.0%), 3-5년 28명(28.0%), 9년 이상이 13명(13.0%), 6-8년 10명(10.0%)으로 2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 근무기관은 요양병원 47명(47.0%), 재활병원 24명(24.0%), 중

합병원 29명(29.0%)으로 요양병원 근무자가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tegories	N(%)
profession	physical therapy	50(50.0)
	occupational therapy	50(50.0)
gender	male	28(28.0)
	female	72(72.0)
education	associate degree	48(48.0)
	bachelor	42(42.0)
	Master's degree	10(10.0)
	not less than 2 years	47(47.0)
clinical career	3 - 5 years	28(28.0)
	6 - 8 years	10(10.0)
	more than 9 years	13(13.0)
service agency	General hospital	29(29.0)
	Rehabilitation hospital	24(24.0)
	Convalescent hospital	47(47.0)
	total	100(100)

3.2. 근거중심치료에 태도의 차이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Table 2). 두 집단 모두 모든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치료사는 '연구결과를 개개환자에게 적용할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물리치료사는 1.56±.86점, 작업치료사는 1.36±.7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Evidence-based practice

Variable	physic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t	p
Application of EBP is necessary in my practice	1.14±.49	1.18±.56	-.378	.451
I need to increase the use of Evidence in my daily practice.	1.14±.45	1.16±.54	-.199	.614
EBP is useful me make decisions about patient care.	1.34±.74	1.22±.61	.878	.080
EBP improves the quality of patient care.	1.48±.83	1.38±.75	1.742	.190
I am interested in learning or improving the skills necessary to incorporate EBP into my patience.	1.44±.83	1.48±.81	-.254	.489
Literature and research findings are useful in my day-to-day practice.	1.37±.75	1.28±.70	.597	.296
I have to find relevant literature to answer my clinical questions.	1.28±.70	1.24±.59	.308	.404
I have to have ability to critically review professional literature.	1.30±.70	1.34±.71	-.281	.675
Therapists make their own decision whether they use the professional literature for the patient care.	1.56±.86	1.36±.74	1.239	.034
There are obvious differences between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1.32±.62	1.38±.78	-.426	.163

3.3.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교육정도 차이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교육정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학에서 학부정규과정으로 EBP의 기초를 배웠다'는 물리치료사가 1.86±.57점으로 작업치료사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부정규과정으로 임상과 관련된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한 검색방법을 배웠다'는 항목점수도 물리치료사가 1.80±.6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정규과정으로 연구문헌을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항목은 2.02±.55점으로 작업치료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세미나형식으로 간략하게 배웠다'는 1.90±.61점으로 작업치료사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3.4. 근거중심치료 수행능력 차이

근거중심치료 수행능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환자의 치료 욕구와 치료선호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묻는 항목에서 물리치료사는 2.44±.57점, 작업치료사는 2.38±.6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환자와 협력하여 적절한 치료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질문에서 물리치료사는 2.30±.58점, 작업치료사는 2.38±.6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Comparison of Educational experience for Evidence-based Practice

Variable	physic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t	p
I learnt the foundations of EBP as part of my academic preparation.	1.86±.57	1.73±.63	1.029	.085
I learnt the formal training in search strategies for finding research relevant to my practice as part of my academic preparation	1.80±.60	1.70±.58	.843	.712
I learnt the formal training in critical appraisal research literature as part of my academic preparation.	1.92±.52	2.02±.55	-.925	.839
I learnt the basic foundations of EBP as part of college seminar. not my formal academic preparation.	1.76±.55	1.90±.61	-1.195	.751

Table 4. Comparison of performance ability for Evidence-based Practice

Variable	physic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t	p
What is the ability to determine the clinical problem based on patient assessment?	2.56±.50	2.68±.65	-.155	.159
How can you answer a question to search the literature on clinical issues?	2.80±.45	2.70±.64	-.657	.422
What is the ability to critically evaluate the validity and validity of the relevant literature?	2.72±.53	2.62±.63	.469	.259
What is the ability to critically evaluate the validity and validity of the relevant literature?	2.44±.57	2.46±.61	.945	.401
What is the ability to critically evaluat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different research designs?	2.26±.56	2.12±.65	.802	.617
What is the ability to interpret statistical results?	2.16±.46	2.08±.52	1.141	.921
What is the ability to properly apply the basis of the study to individual patients?	2.28±.49	2.18±.56	-.168	.636
What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needs of patients and their preferences?	2.44±.57	2.38±.69	.851	.029
What is the ability to work with patients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course of care?	2.30±.58	2.38±.63	.896	.003
What is the ability to continuously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2.52±.58	2.54±.70	-1.031	.182

4. 고찰

본 연구는 물리·작업치료사 100명을 대상으로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았다. 물리·작업치료사간의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는 ‘치료사는 연구결과를 개개환자에게 적용할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태도에 대한 항목에서 물리치료사는 ‘EBP는 환자의 치료를 결정할 때 유용하다, EBP는 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EBP를 위한 문헌과 연구 결과는 임상에서 유용하다, 치료사는 임상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스로 문헌고찰을 수행해야한다’라는 항목에서 작업치료사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작업치료사는 ‘EBP는 임상에서 필요하다, 임상에서 근거의 사용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임상에 EBP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거나 향상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항목에서 물리치료사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임상에 EBP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거나 향상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항목에서 작업치료사는 1.48±.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물리치료사는 ‘치료사는 연구결과를 개개환자에게 적용할지의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라는 항목에서 1.56±.8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강대혁 등⁵⁾의 연구에서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EBOT가 치료에 도움이 되고 과학적 근거를 세우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작업치료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EBP를 통해 작업치료사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고, 임상적인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⁷⁾. 물리치료사의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EBP가 물리치료 임상에서 필요하며(88.3%), 환자치료의 결정 시 유용하다(85%)고 하였다⁶⁾.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물리·작업치료사 모두 EBP가 임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교육정도 차이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물리·작업치료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appolt와 Tassone¹⁰⁾은 실제 임상 치료사들의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도 ‘대학에서 학부정규과정으로 EBP의 기초를 배웠다’는 항목에서 물리치료사는 1.86±.57점, 작업치료사는 1.73±.63점으로 보아 교육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수행능력 차이는 ‘환자의 치료 욕구와 치료선호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묻는 항목과 ‘환자와 협력하여 적절한 치료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치료 욕구와 치료선호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작업치료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작업치료사는 환자와 협력하여 적절한 치료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물리치료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수행능력들은 물리·작업치료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낮은 수행능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태도와 교육정도, 수행능력의 항목 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치료사 집단 모두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비슷한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근거중심의학의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한 임기영³⁾은 근거중심의학의 효과적으로 습득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 직후부터 정보이용교육 및 컴퓨터교육을 시작으로 점진적 근거중심치료의 수행단계에 따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물리·작업치료사를 배출하는 대학에서도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끊임 없이 해야 임상에서 근거중심치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G 지역 10개의 의료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 100명을 대상으로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았고, 인식도는 근거중심치료를 대한 태도, 교육정도, 수행능력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태도에서는 ‘치료사는 연구결과를 개개환자에게 적용할지의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라는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교육정도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수행능력 차이는 ‘환자의 치료 욕구와 치료선호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묻는 항목과 ‘환자와 협력하여 적절한 치료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 대부분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태도나 교육정도 및 수행능력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부과정에서나 임상에서 근거중심치료에 대한 교육이 더욱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Park JY. A Study on Introducing of Evidence-Based Medicine (EBM)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Clinical resident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the Perception of EBM. Myongji University, 2012.
2. Kim SY. Evidence-Based Medicine.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01;3(1):1-19.
3. Lim GY. Teaching using evidence-centered medicine - development of learning method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01;3(1): 21-25.
4. Kim GH. Evidence-Based Nursing. korean Journal of nursing, 2003;226:54-63.
5. Kang DH, Lee JO, Kim JG. Recognition of evidence-based practice by domestic occupational therapists surveyed.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007;15(1):13-23.
6. Kweon MJ. EBP utilization of physical therapists who treat and analyze stroke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2012;7(3):283-291.
7. Lee JH, Kweon MJ, Kim G, et. al. Evidence-Based physical therapy. elviskorea, 2009.
8. Kim JR, Kim SH, Yang No. Evidence-Based Practice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 : Survey on awareness, resource use, and confounding. Therapeutic Science for Neurorehabilitation, 2012;1(2):54-63.
9. Kim NS, Lee HY, Seo HJ, et al. Analysis, Evaluation and Planning Toward Enhancing Evidence Use in Health Polic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10. Rappolt S, Tassone M. How rehabilitation therapists gather, evaluate, and implement new knowledge.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the Health Professions, 2002: 22(3), 170-180.